

역사·현실풀자...

새해 극장가에도 쪽~



‘1987’ ‘군함도’ 등 대작 잇따라 개봉

5·18 민주화운동 실화 ‘택시운전사’

‘더킹’ 등 대선시즌 맞아 흥행 예상

올해 극장가에는 현 세태를 조집는 영화들이 재난, 범죄오락, 액션 장르의 외파를 쓰고 쏟아져나왔다. 내년에도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극장에 걸린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훈 중위 사건 등 그동안 좀처럼 보기 힘든 소재들도 스크린 속으로 불려 나왔다. 상당수가 저예산영화가 아니라 메이저 투자배급사가 직접 나서 대형 상업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역사적 아픔을 상업화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화 ‘1987’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다.

‘지구를 지켜라’(2003), ‘화이 : 괴물을 삼킨 아이’(2013)의 장준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CJ E&M이 투자배급에 나선다. 김윤석, 하정우, 강동원이 캐스팅돼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CJ E&M 관계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시작으로 6월항쟁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슬프고 뜨거웠던 1987년 그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소개했다.

소박스가 투자 배급하는 ‘택시운전사’는 5·18 민

주화운동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특파원을 태우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운전했던 실제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 송강호가 택시운전사 역을, 토마스 크레치만이 특파원 역을 맡았다. 연출은 ‘고지전’(2011)의 장훈 감독이 담당했다.

최근 촬영을 마친 ‘군함도’는 새해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힌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군함도(하시마 섬)에 강제 징용된 뒤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 400여 명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류승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이정현 등이 출연한다. 이 영화도 CJ E&M이 투자배급을 맡았다.

임성찬 감독의 ‘아버지의 전쟁’은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숨진 고 김훈 중위의 의문사 사건을 스크린으로 옮긴다. 김훈 중위의 아버지 감척 예비역 육군 중장이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초점을 맞췄다. 민감한 소재 때문에 투자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 투자자가 나타나면서 제작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대립군’은 20세기폭스코리아가 ‘곡성’에 이어 5번째로 투자·배급하는 한국영화여서 관심이 쏠린다. 임진왜란 당시 백성을 버리고 피란한 선조를 대신해 왕세자인 광해가 조선을 지켜야만 했던 역사 속 이야기와 고된 군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대신해 돈을 받고 군 생활을 하는 대립군(代立軍)의 이야기를 영화로 옮겼다. 정윤철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대립군을 이끄는 대장 토우 역은 이정재가, 광해 역은 여진구가 맡았다.

황동혁 감독의 ‘남한산성’은 김훈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1963년 병자

호란 때 남한산성에 갇힌 무기력한 인조 앞에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대립한 조정의 대신들과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 앞에 놓인 민초들의 삶을 다룬다.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고수 등 출연 배우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사회 현실 풍자하는 영화들은 내년에도 쏟아진다. 하재림 감독의 ‘더 킹’이 내년 1월 가장 먼저 포문을 연다. 권력을 휘두르며 폼파라 살고 싶었던 태수(조인성)가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정우성)을 만나면서 겪는 일들을 그렸다.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면서 권력의 민낯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박인제 감독의 ‘특별시민’은 대한민국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서울시장 변종규의 이야기를 다룬다. 최민식이 생애 첫 정치인 연기에 도전해 화제를 모은 영화로, 현실정치에 대한 풍자가 담겼다.

역사와 사회 현실을 다룬 작품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은 관객들의 취향과 요구를 반영한 흐름으로 분석된다. 또 스타급 배우들을 투입해 대작영화로 만들면서 관객과의 거리를 좁힌 점도 주요했다.

대형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픈 역사를 다루면 관객들이 즐길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암살’처럼 역사적 소재를 대중적인 장르로 녹여낸 경우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영화 시장 분석가는 “대선시즌을 맞아 내년에는 20대 관객층이 이전보다 더 영화의 흥행을 주도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현실이 심각할 경우 소재가 심각하지 않은 영화가 흥행에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민 ‘KBS 연예대상’ 영예

최고의 프로그램상 ‘1박 2일’

‘2016 KBS 연예대상’은 ‘1박2일’의 원년 멤버 김종민(사진)의 품에 안겼다.

24일 밤 서울 여의도 KBS 신관공개홀에서 열린 ‘2016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김종민은 ‘해피투게더’의 유재석, ‘개그콘서트’·‘1박2일’의 김준호, ‘슈퍼맨이 돌아왔다’·‘배틀 트립’·‘비타민’의 이휘재, ‘안녕하세요’·‘불후의 명곡’의 산동엽을 제치고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김종민은 “제가 대상 후보에 올라온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유)재석이 형이 예능에 입문 시켜주고 (강)호동이 형이 끌어주고 마지막에는 (차)태현이 형이 이 자리로 밀어올려주신 것 같아서 형님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생방송과 함께 진행된 시청자 투표 결과가 반영된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은 9년 장수 프로그램 ‘1박2일’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개그콘서트’의 유민상·이수지(코미디), ‘불후의 명곡’의 정재하, ‘배틀 트립’·‘언니들의 슬램덩크’의 김숙(토코&쇼),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이동국·‘언니들의 슬램덩크’의 라미라(버라이어티)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개그콘서트’의 송영길·이현정(코미디), ‘해피투게더’·‘트릭 앤 트루’의 전현무(토코&쇼),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이범수·기태영(버라이어티)이 받았다.

‘신인상’은 ‘개그콘서트’의 홍현호·김승혜(코미디), ‘안녕하세요’의 최태준·‘해피투게더’의 엄현경(토코&쇼), ‘1박2일’의 윤시

운·‘언니들의 슬램덩크’의 민효린(버라이어티)이 거머쥐었다.

이휘재, 해리, 유희열이 사회를 맡아 오후 9시15분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언니들의 슬램덩크’가 배출한 걸그룹 ‘언니쓰’와 I.O.I & 허경환, AOA, 트와이스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다음은 그밖의 상 ▲라디오 DJ상=박명수(박명수의 라디오쇼) ▲방송작가상=윤기영(개그콘서트)·정선영(1박2일)·지현숙(언니들의 슬램덩크) ▲하이스루 에능프로그램상=‘마음의 소리’ ▲베스트 팀워크상=‘해피투게더’ ▲베스트 엔터테인먼트상=남궁민(노래싸움 승부) ▲인기상=‘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이들 ▲베스트 커플상=이광수·정소민(마음의 소리) ▲최우수 아이디어상=‘세젤레’(개그콘서트) ▲프로듀서 특별상=박진영(언니들의 슬램덩크)

연합뉴스

성희롱 논란·염영란 비하 등 잇단 구설 몸살

tvN ‘SNL코리아’ 결국 조기 종영

tvN 코미디쇼 ‘SNL코리아’ 시즌8이 24일 가수 황치열 편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생방송된 ‘SNL코리아’에는 중국에서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한 황치열이 출연해 드라마 ‘도깨비’의 저승사자 캐릭터 연기와 유명 가수 모창 등을 선보였다. 이날 방송 시청률은 평균 2.6%(이하 닐슨코리아·유료플랫폼), 최고 3.3%로 집계됐다.

지난 9월 시작한 ‘SNL코리아’ 시즌8은

관객수가 활약한 ‘다방극장’을 비롯해 다양한 코너로 인기몰이했다. 평균 시청률이 3%(이수근 편)까지 치솟는 등 역대 최고 흥행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개그우먼 이세영이 특별 출연한 보이그룹 B1A4의 성희롱 논란으로 하차하고, 정이랑의 콩트 연기가 영화배우 염영란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잇단 구설에 결국 일찍 종영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송년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국정조사특위 서울구치소 현장조사	10 좋은 아침
10	00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6차 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최순실 국정농단 6차 청문회
11		00 월화드라마 <화랑> (재)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토크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5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전설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재)	00 1대 100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닥터 365
2	00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6차 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국정조사특위 서울구치소 현장조사	00 최순실 국정농단 6차 청문회
3		00 공동기획생각 위키 2 30 TV유지원		
4		00 여유만만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토크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 파レード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건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7 35 송년기획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화랑 1.2회 특별판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2016 SAF 가요대전 1~2부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송년기획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화랑>	00 월화 특별기획 <불야성>	
11	00 KBS 뉴스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2	20 101세의 프로젝트(재) 50 인간극장 스페셜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문화콘서트 난장 LIVE 20 MBC 뉴스 24 45 스포츠 특선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 e 생황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지중해 각기행> - 시칠리아 맛에 빠지다>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당 유치원 1~3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왕스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일본 배춧죽과 낙지찜갈 볶음밥)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출겨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시계마을 티키토!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 상자(2) 15:45 출동! 슈퍼왕스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덩동당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크 오늘 <겨울 방어> 20:50 세계테마기행 <미지의 땅, 남중국 탐험> -전설의 땅, 플린더스> 21:30 한국기행 <우리는 겨울바다로 간다> - 바다의 품에 안기면> 21:50 EBS 다크 프라이빗 <중앙아시아, 야생의 기록> - 피미르와 히말라야>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유동적인 변수까지 감안하자. 60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로 향하고 있으니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72년생 약점을 보완한다면 거의 완벽해질 것이다. 84년생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우회해서 비유함이 더 낫다. 행운의 숫자 : 34, 05	午	42년생 제반사에 과감한 결단과 적절한 실행이 필요하다. 54년생 기발한 발상이 돋보일 수이니 창의성을 도모해보자. 66년생 빈틈을 보게 될 것이다. 78년생 기회는 나는 세처럼 아무 곳에서나 내려앉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79, 65
丑	49년생 망설이면 모든 것을 놓치고 말리라. 61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부릴없는 일이 될 것이다. 73년생 시종일관 신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85년생 기다렸다는 듯이 때땀추어나타나라라. 행운의 숫자 : 62, 87	未	43년생 타산적으르써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이다. 55년생 피나 속상할 일이 생기겠으니 마음을 비우고 속 편하게 생각하라. 67년생 부수적인 것은 미루고 당면 과제에 집중적으로 매진하는 것이 옳다. 79년생 당황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8, 99
寅	50년생 다자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62년생 소신껏 판단하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74년생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 86년생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83	申	44년생 막연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니 진행 계획이 구체적인 필요가 있느니라. 56년생 시세에 적응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 68년생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파멸을 부를 뿐이다. 80년생 성과를 보이라라. 행운의 숫자 : 35, 21
卯	51년생 세심하게 살피면서 가만안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63년생 부담스럽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낫다. 75년생 목격하였던 바의 본격적 형국이 벌어질 것이니라. 87년생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지경이다. 행운의 숫자 : 59, 91	酉	45년생 성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57년생 취약하거나 저조한 면모이니 급하지 않다면 가끔씩 뒤로 미루는 것이 이익이다. 69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 것이다. 81년생 한 가지만 해결되면 연세적인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32, 44
辰	40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 52년생 예견지 못한 점들이 보인다. 64년생 부담이 경감 되겠다. 76년생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해답이 나오리라. 88년생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세적인 탄력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 18, 29	戌	46년생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면서 활기치게 변성하는 운로다. 58년생 조건이 양호하니 자신감 있게 추진해도 된다. 70년생 성공으로 가게 되는 귀중한 계기를 마련한다. 82년생 즐기분한 마음으로 임했을 때 더 나은 성과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0, 68
巳	41년생 느긋하게 임해도 될 국면이다. 53년생 큰물로 나아가야 대어를 잡을 수 있느니라. 65년생 전면적으로 거사를 도모할 수 있는 날이다. 77년생 공들여 왔던 일이 성사 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89년생 확실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0, 15	亥	47년생 귀인으로부터 절실했던 해당사항에 대해 은혜를 입게 된다. 59년생 예상치 못 했던 곳에서 물고기가 트인다. 71년생 협조를 가장해서 자신의 실속을 채우려는 이가 보인다. 83년생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97, 4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형” ☎010-9790-8237			